

중요한 액세서리 역할을 하는 넥타이

넥타이 (necktie): 목 또는 깃 둘레에 감고 여분을 앞부분에 늘어뜨리는 띠나 끈 모양의 장식용 부속품. 넥(neck)과 타이(tie)의 복합어로 이것을 약칭하여 타이라고도 한다. 남녀 노소를 분문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남성복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액세서리이다.

타이의 소재는 대개 비단, 합성섬유, 모, 피혁, 사란 등이고, 제조방법에 의하여 직물 타이, 염색 타이, 편물 타이 등으로 나뉜다. 또한 모양에 따라서도 스카프 상태의 애스컷 타이, 끈 상태의 웨이스터 타이, 장식맷기풍의 나비타이, 그리고 보편적인 띠 모양의 타이 등으로 분류된다.

역사적인 면에서 고대 로마시대의 군인이 사용한 포칼(focal : 올 목도리)이 넥타이의 시초였으나, 직접적인 기원은 크라바트(cravat : 옛 남자용 목도리)로 되어 있다. 크라바트의 어원은 크로아트(croate : 크로아티아의 기마병) 장병의 목에 감은 선명한 빛깔의 천을 본뜬 것으로 17세기 중기부터 프랑스 상류사회에 등장하여 1660년대부터 유럽 남성복에 일반화되었다. 초기의 크라바트는 레이스와 자수의 장식을 한 론(lawn)과 모슬린, 실크 등 부드럽고 얇은 천을 스카프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이것을 목에 감고 남은 부분으로 일반적인 장식 맷음과 나비맷음 등으로 옷깃을 치장하였다. 남성복 길이의 정도와 깃이 없거나 깃이 소형 형식인 옷에 크라바트가 잘 조화되어, 그 유행은 형태, 장식, 소재, 매는 법 등에 다소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스타인커크(steinkerk)와 스톡(stock) 등도 이와 같은 예이다.

그동안 네트클로스(neckcloth)라는 말은 네크웨어의 총칭으로서 존재하였으나, 남성복 유행의 주도권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바뀐 19세기에는 우선 크라바트 대신 네크클로스라는 말이 일반화되었고, 1930년경부터는 넥타이라는 말이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초기의 넥타이는 현재의 것과 같은 것이 아니고 크라바트의 형식이 어느 정도 담겨 있었다. 당시의 애스컷 타이는 스카프

모양의 넥타이에서 띠 모양의 넥타이로 바뀌어 가는 과도기의 것으로 그 모양은 두 타이의 요소가 합쳐진 것이었다. 이것이 시대와 더불어 점차 띠 모양으로 변화되면서 너비와 길이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소재가 사용되어 1890년에는 더비타이(Derby tie)와 포인핸드(four-in-hand)라고 하는 현대적 넥타이로 발전하였다.

현재는 띠 모양의 넥타이가 남성용 타이의 주류를 차지하고, 장식요소가 적은 남성복에서 중요한 액세서리 역할을 한다. 또한 스카프 모양의 것은 스포츠용과 부녀자 및 어린이용 등에 많이 사용된다.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애스컷(Ascot) : 19세기 말 영국의 애스컷 히드(Ascot heath) 종족이 착용한 데서 붙은 목 장식용 타이이다. 폭이 넓은 타이로서 앞을 핀으로 고정한다.

② 보타이(bow tie) : 남자용의 작은 타이로서 끝이 네모진 것과 마음모꼴, 나비모양으로 매는 넥타이이다. 최근에는 정장차림에 많이 쓰인다.

③ 클립은 타이(clip on tie) : 포인핸드형의 넥타이나 금속의 핀이 부착되어 쉽게 와이셔츠에 고정시킬 수 있다.

④ 포인핸드 : 1890년대 이후 비즈니스맨이나 일반 남성들이 착용하는 스타일의 넥타이로, 매었을 때 맨 곳에서 아래까지의 길이가 주먹의 약 4배 정도라고 하여 이름이 붙었다.

⑤ 크라바트 : 1630년대 프랑스 군대 크라바트 연대의 한 병사가 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흰리넨 또는 삼베를 접어 목에 두른 것이 기원이다. 그 후 레이스 등을 달거나 실크로 만들어 장식용으로 발전하였다. 넥타이를 매는 방법으로는 간단히 매는 프레스식, 노트가 프레스식 보다 큰 에스콰이어식, 흔히 매는 원저 노트식, 그리고 보 타이식이 있다.